

‘거문도좁혹달팽이’가 아직도 살아있을까? 아니면 지구를 떠났을까. 그것을 걱정하면서 이 글을 쓴다. 그리고 보니 지금으로부터 근 30년 전이다.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 전국을 헤매고 다닐 적이다.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으니 보통 때는 가르치느라 움짱달 딱 시간을 내지 못하고 두 번의 방학을 거의 빠짐없이 달팽이 채집에 썼다. 단돈 5만 원 수중에 달랑 들고 나서면 한 열흘을 돌아칠 수가 있었다. 사실 죽자 살자 돌아치고 다녔지만 지도에 간 곳을 짐작해보면 빈 곳이 거의 전부다. 버스, 기차, 배를 타고 다니면서 달팽이를 채집했다.

밤새도록 달려온 야간열차를 타고 물 맑다는 전남 여수에 내려 곧바로 거문도행 배를 탔다. 채집을 다니면 시간 맞춰 못 먹으니 굶는 것에 이력이 나 있었다. 그러니 얼굴에 핏기라고는 없고, 햇볕에 탈 대로 타서 물골이 말이 아니었다. 배 위에서는 앞사람들이 그곳에서 채집해 발표한 문헌을 뒤적거렸다. ‘거문도좁혹달팽이’. 1943년에 일본인 미야나가Miyanaga가 발표한 신종新種이 눈에 띈다. 학명을 *Nobuea elegantistriata*로 지어 발표를 해놓고 있었다. 속명인 *Nobuea*는 일찍 사별한 미야나가의 부인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신종이란 세계의 어느 곳에도 없는 종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거문도에만 사는 고유종(특산종)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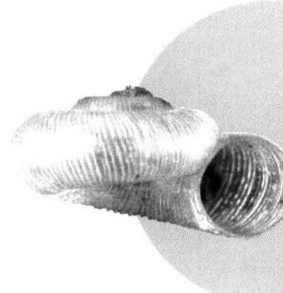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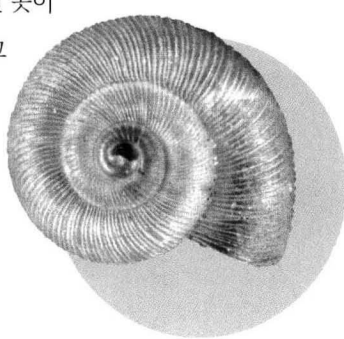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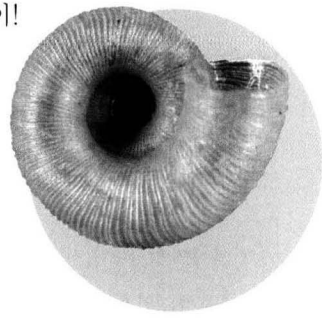
그때는 거문도에 여관이 달랑 하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날 따라 길손도 나 혼자였다. 거문도는 동도, 서도, 고도 세 섬으로 이뤄져 있다. 동도에는 영국군의 거문도 점령 당시 이곳에서 사망한 영국군 수군묘비 3기가 남아 있다. 서도에서 문제가 터졌다. 마을을 돌아 언덕길을 올랐다. 나무 몇 그루가 있는 곳에 배낭을 벗어놓고 돌멩이, 낙엽을 들치면서 달팽이를 잡고 있었다. 아무리 남쪽 섬이라 해도 겨울이라 파카를 둘러쓰고선 눈에 쌍심지를 켜고 깨알같은 달팽이를 찾고 있는데, 육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는가. 뭐가 옆을 스쳐갔는데 핵 뒤돌아봤으나 아무것도 없다. 아니나 다를까. 순간 내 둘레를 사람들이 꼭 둘러쌌다.

“손들어!” 거기가 바로 고정간첩 사건이 있었던 곳이다. “당신 간첩이지?” 손을 안 들 재간이 없었다. 살고 볼 일이었다. 국방색 파카를 둘러쓰고 땅을 파고, 돌

글 | 권오길(강원대학교 교수·과학칼럼니스트)

을 들추고, 낙엽을 뒤집고 있으니, 난수표를 찾는 간첩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다. “나 선생이요”하고 치켜든 얼굴 꼬락서니도 비쩍 마른 게 별에 탈 대로 뒀으니 영관 간첩이다. 도대체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더니 누가 뛰어다녀 온 후에 풀어준다. 여관에 전화를 한 것이다. 어젯밤 여관 주인이 이미 날 샅샅이, 꼼꼼히 들여다 봤던 것이다. 틀림없이 순경들도 다녀갔을 것이고, 그래도 웬지 미심쩍어 하는 그들에게 녀살을 부리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이 달팽이는 여자에겐 미용에, 남자에겐 정력에 좋다고 떠들어대니 다들 눈이 둥그래져 가까이 다가와 채집한 것을 들여다보느라 난리였다. 예나 지금이나, 육지나 섬이나 그놈의 미용과 정력이 간첩을 잇을 정도로 좋은가 보다.

3일을 눈에 불을 켜었으나 거문도좁혹달팽이는 감감 무소식이었다. 도로아미타불! 포기하고 내일은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태풍으로 배가 뜨지 못한다고 한다. 한두 번 당하는 일이 아니었다(이런 때를 대비하여 손가락에 금반지 하나를 끼고 채집을 나선다). 다 포기하고 뒷산 밭가로 올라갔다.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돌을 뒤척거리고 있었는데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다! “너 여기 있었구나! 노브에!” 난 옆에 퍼져리 앉아서 담배 한 대를 한껏 빨아 당겼다. 거문도좁혹달팽이!
노브에야! 태풍이 날 살린 셈이다. **한글**



태풍이 선물한 거문도좁혹달팽이